



남가주목사회 제48회 총회가 11월 17일 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사진 앞줄 좌측 세번째가 정중윤 직전회장, 네번째가 백지영 신임회장.



시애틀 웨스트교회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케네스 배 선교사(왼쪽). 오른쪽은 유진 조 담임목사.

남가주목사회 사상 최초 여성 회장 당선

교협 이어 목사회도 수석부회장 공식 사태 빚어져

남가주한인목사회 48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목회자가 회장이 됐다. 지난 회기 수석부회장이었던 백지영 목사는 11월 17일 열린 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회장에 인준됐다. 백 목사는 “부족한 자에게 회장직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이 아닌 발로 뛰며 일하는 회장이 되겠다.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 너무나 많다. 교계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자”고 밝혔다.

백 목사는 남가주목사회에서 17년간 봉사하며 부회장도 7번 역임한 바 있다.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으로 봉사한 경험도 갖고 있어 남가주 지역 교회 연합 사업에 상당한 내용을 자랑한다. 그는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순복음신학교, 베다니신학대학, 트리니티신학대학원 등에서 공부했다. 미국 하나님의성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았으며 인디애나반석교회 전도사를 거쳐 현재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목사다. 한국 월간아동문학 신인상에 동시 작품이 당선되며 문인 활동을 시작해 시카고문인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직전회장 정중윤 목사는 “열심히 했지만 부족함도 많았다. 목사회를 이끌며 부담도 컸지만 이제 회장직을 마치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가주목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해당하는 수석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남가주교협이 2년 연속으로 수석부회장 출마자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가주목사회 역시 수석부회장 출마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총회는 “공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에 (후보를) 추천한 후, 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남가주교협이 최혁 신임 회장에 수석부회장 임명의 전권을 위임한 것과 동일하게 남가주목

사회도 사실상 수석부회장 선출의 절대적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출마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수석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다”는 것은 남가주교협이나 남가주목사회 모두에 있어서 큰 위기로 지적되고 있다. “교계를 이끌 인물, 교계를 섬길 인물”이 없다는 사실 자체뿐 아니라 수석부회장 선출의 모든 권한이 회장에게 일임됐다는 것은 그만큼 갖춰야 할 회장의 사역에 부담감을 더해 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또 회원들 다수의 결정이 아닌 회장 한 명의 뜻에 의해 차기 회장이 지목, 임명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교회 연합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차기 회장의 대의성이나 공신력에도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교계 연합 사업을 특정 인물 그룹이 독식하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남가주목사회 총회에서 회원들은 회장, 수석부회장 선출에 대한 회칙

“하나님 의지하며 희망 놓지 않았다”

지난 8일 북한으로부터 석방된 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해 온 케네스 배 선교사가 지난 16일, 여동생 테리 정 씨가 출석하는 시애틀 웨스트교회(담임 유진 조 목사)를 방문해 짧은 감사 인사와 소감을 전했다. 한인인 조 목사가 시무하는 웨스트교회는 미국의 대표적 다민족교회이며, 배 선교사의 역류 후 기도회를 열고 그의 구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배 선교사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혼자라고 느끼고 외로워 하거나 희망을 포기하

지 않았다”며 “북한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케네스 배 선교사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분노나 후회를 선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사랑, 회복을 목상했다”고 전했다.

유진 조 목사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죽음과 삶,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조 목사는 배 선교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덧붙혔다.

황준호 기자

을 놓고 약 30여 분 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요 안건은 현재 회장 출마자가 5천 달러, 수석부회장 출마자가 3천 달러 발전기금을 내도록 한 회칙을 회장은 3천 달러, 수석부회장은 2천 달러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회원들은 “발전기금 금액이 너무 높아서 작은 교회 목사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목사들이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회칙을 새롭게 수정하려 한 바 있다. 즉, 발전기금 금액을 좀 낮추면 출마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이 개정안을 놓고 회원들은 “금액을 낮추면 출마자가 나올 것이다”, “다수의 출마자가 나오면 한 명의 출마자가 나오는 것보다 더 많

은 발전기금이 모일 수 있다”, “회장은 섬길 각오를 해야 하므로 오히려 발전기금 금액을 높이자”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결국 회원들은 현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다시 개정위원회를 조직해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토론 중 목사회 의 위상 강화 방법, 교계 연합의 품도 개선이라든지, 연합 활동의 일꾼 양성이나 리더십 개발 등에 대한 건설적 발언이 아닌 금액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한 회원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개정안을 받을 것인지 않을 것인지, 않겠다면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회원들은 재개정을하기로 결정했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 \$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당 선 공 고

남가주 한인 목사회 제 48대 회장

백지영 담임목사님의 남가주 목사회 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의 S. Immanuel Mission Church 와 Solomon University 에서는 제 48차 남가주 한인 목사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본 교회 백지영 담임목사님이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남가주의 모든 목사님들이 신임 회장님의 성실하신 리더십을 통해 하나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48년만에 처음 여성 목사님께서 당선되시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S.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 일동, Solomon University 교수, 재학생 이사 일동

 백지영 회장	〈학력〉 조선대학교졸업 한국 외국어 대학(원) EMB 수료 순복음신학교졸업 Bethany 신학대학졸업 Trinity 신학대학원졸업 (신학석사) M. Div Bethany 신학대학원졸업(교육철학박사 Ph.D) California International Seminary, D.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D.D.	경력 서울 女子 J.C 창립멤버 서초라이온네스클럽 초대회장 LA evergreenLions 회장 역임 인디애나주 한인회장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부이사장, 부회장 한국월간아동문학신인상 동시 당선 시카고문인회 회원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 총무역임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저서: 옥합을 깨뜨린 女人, 세월의 흔적(시집), 교육철학개론 외 다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예화)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아동문학회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在美 시인협회 회원 국제크리스찬작가협회 회장 한국: 은파장로교회 교육 전도사 (합동) 미국 인디애나 반석교회 교육전도사 미국 하나님의성회 목사 안수	현재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목사 YUIN UNIVERSITY 신학대학 교수 역임 남가주한인목사회 17년 봉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 부회장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남가주 한인목사회 제 48대 회장 SOLOMON UNIVERSITY 총장
	3921 Wilshire Blvd. #400-408 Los Angeles, CA 90010 T. (213)381-7755, (213)380-7755 C. (323)708-9191 남가주 한인 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박효우 직전회장(좌)이 최혁 신임회장(우)에게 교협기를 건네주고 있다.

남가주교협 회장에 최혁 목사 취임

“예수 따라 섬기는 교협 될 것” 약속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5대 회장에 최혁 목사(주안예교회 담임)가 취임했다.

11월 16일 주안예교회 벨리제플에서 열린 남가주교협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최 목사는 회장에 취임하며 “섬기는 교협이 될 것”을 약속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발자취를 따라 본이 되는 남가주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가주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도와주며 사랑으로 배려해 세상에 빛을 발하자”면서 “100여 년 전 한국에 입했던 회개와 부흥운동의

역사가 남가주에서 다시 일어나길 기도한다”고 했다.

박효우 직전회장은 이임사에서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교협회장이 되어서 기쁘다”면서 “회장은 힘든 자리다. 최혁 목사를 믿어 주라. 잘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짧게 밝혔다.

이날 예배에서는 세계복음선교회 이병희 목사가 “섬기는 종이 되자”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최화광 경경회장단 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김현명 LA총영사, 에릭 가세티 LA시장, 미치 오페럴 LA 13지구 시의원도 축사를 서면으로 보내 왔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목사회 일일식당으로 장학금 지급

신학생 5명에게 500달러씩, 고등학생 7명 추가 지급 예정

지난 제47회 남가주한인목사회는 총 38,587.64달러의 수입을 얻어 32,486.29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48회 총회에서 공개된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목사회의 가장 큰 사업은 최근 이뤄진 일일식당이였다. 이 행사에서 목사회는 17,410.00달러의 수입을 얻었고 14,664.50달러를 지출했다. 목사회는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서 일일식당 행사를 벌였고 이 수익금은 목회자 자녀와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상에 일일식당 관련 지출 14,664.50달러가 장학금, 경비지출, 어께띠, 배너 등으로 함께 기재된 것에 대해 회원들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자 회계 최명상 목사를 대신해 총무 김관진 목사가 “수익의 60%를 식당 측에 지불했고 500불씩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 후 회원들은 이 회계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총회 후 본지는 목사회 주요 임원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5명의 학생은 월드미션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갈릴리신대학교, 솔로몬대학교, 국제개혁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었다. 이

사무실 렌트비	\$1,500.00	비고
회관 조화	\$500.00	인문, 방송
Bank Service Fee	\$1,900.00	감사, 광고, 취임
행사 식사비	\$840.00	
사무실 렌트비	\$16.00	
주차비	\$900.00	3.1 월, 6.25, 현판식, 임원이사회
사랑의 쌀 나눔	\$8,400.00	
경조비	\$960.00	
일일식당 지출: 비락 식당	\$1,000.00	
연감	\$300.00	
초청강	\$14,664.50	장학금, 경비지출, 어께띠, 배너
음악회 선교비	\$200.00	
총회 준비비	\$180.00	
총지출	\$200.00	
	\$151.58	
38,587.6 / 총지출	\$32,486.29	

남가주목사회가 48회 총회에서 공개한 제47회 회계보고서

들에게 각각 500달러, 총 2,500달러가 수여됐다. 수입과 지출 금액을 대조해 볼 때, 2,745.50달러가 잔액으로 남아 목사회 이월금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는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를 통해 LA고등학교의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목사회 측은 설명했다. 당시 이 행사는 목사회와 여성목사회가 공동으로 했으며, 행사 당시 여성목사회장이었던 백지영 목사는 현재 목사회장에 당선된 상태다. 추가 장학금은 300달러씩 7명으로 총 2,100달러이며, 여전히 645.50달러가 남는다. 목사회가 현재 지급하지 않고 보관 중인 2,745.50달러 중 2,100달러가 장학금으로 추가 지급된다고 했을 때, 일일식당의 결산을 보다 구체

적으로 내보면 4,600달러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목사회가 어렵잖아 전체 수익의 60%라 밝힌 10,446달러가 식당에 지불된 셈이다. 그리고 2,364달러가 각종 행사 경비로 잡혔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회기 목사회의 주요 지출 분야는 사무실 렌트비였다. 목사회는 그동안 사무실 없이 활동하다 지난 1월 25일 한인타운 3921 월셔블러바드에 사무실을 구해 입주했다. 회기 총 렌트비는 8,400달러였다. 그 외에 사무실 운영을 위한 주차비가 960달러, 사무비품 구매가 1,900달러, 삼일절, 육이오기념식 등 각종 행사 후 식사비가 900달러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형 기자

“기독교 신앙 지키며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까지”

기독교의료상조회 남가주 북부지부 사무실 개소

기독교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 CMM)가 남가주 북부지부 사무실을 개소하고 LA, 샌버나디노, 벤츄라, 산타바바라 등 4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본격적 활동에 돌입한다. 사무실은 LA한인회관 3층에 있다. 오바마케어 도입 이후,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저렴한 비용,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혜택 등으로 인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기독교의료상조회는 남가주 지부를 북부와 남부, 두 개로 나눠서 보다 많은 한인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5000명에 불과하던 회원수가 올해 4월까지 15,000명을 돌파했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약 5,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했다. 북부지부장 김경호 목사는 “기독교의료상조회가 가진 장점이 많다 보니 한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부는 사무실을 개소함과 동시에 홍보위원 10명을 특별히 2주간 훈련을 시켜 한인들의 가입을 돕기로 하였다.


북부지부 조사라 매니저는 “보다 전문적으로 기독교의료상조회를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가지고 교육했다”고 전했다.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H.R.3590에서도 인정된 기관으로, ‘종교적 면제’ 대상 501(C)(3)로써 벌금 부과에서 제외된 한인 유일의 단체이다. 김 목사는 “기독교의료상조회는 현금으로 의료비를 지불하기에 오히려 병원과 의사가 환원한다. 원하



기독교의료상조회 남가주 북부지부를 섬기는 이들

는 병원이나 의사를 방문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 가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골드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500달러를 지원해 정기 검진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533-2418 김나래 기자



새 빛 한 의 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서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차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DKHIS.Inc

DK HEALTH INSURANCE, 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 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KAKAO

TALK

213-500-4563
ID:DKHEALTH

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이전트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제공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현재의 소득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하 보험료가 줄었습니까? 가족구성원의 수가 변화했습니까? 현재의 건강보험을 2015년에도 유지 하고 싶습니까?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세요, 혹은 카카오계정을 이용 하시면 더욱 편리 합니다.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칼 메디케어 특별 필요 플랜도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차과 혜택 분석, 안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배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스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특 서비스를(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저장하세요)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 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0146629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바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고승희 목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인 선교. 이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지만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튼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은 한인교회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미주개척교회(CRC)가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 글로벌 교회 서밋(Global Church Summit)에서는 여러 선교 지도자들이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어떻게 세계적(Global)이면서도 지역적인(Local), 즉 글로벌(Glocal)한 관점에서 다룰 것인지를 논의했다. CRC 측은 특별히 이 행사



양춘길 목사

내에 한인 트랙을 개설해서 한인 목회자들에게도 개방했다.

이번 한인 트랙에서 가장 주목받은 강사는 바로 고승희 목사, 양춘길 목사, 김동일 목사다. 이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1. 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바로 옆에 아름다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승희 목사는 남가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전문가다. 이 교회는 중동권 선교, 중국권 선교에 집중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투자를 해 실질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미 선교적



김동일 목사

인 교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목사는 최근 아름다운교회가 있는 로렌하이츠 지역을 보며 새로운 선교를 시도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화교들이 몇 년 전 교회를 빌려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신 "빌려주지 않고 같이 하자"고 했다. 예배당을 무료로 빌려 주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처음 약 10여 명이던 이 교회는 현재 60여 명으로 성장했다.

또 교회에 한인교 결혼한 일본인 1명이 생긴 이후, 이 교회 내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모였다. 그리고 일본어 회중 셀교회가 탄생했다. 나아가 조선족 목회자 한 명을



미주장신대 후원의 밤에서 이상명 총장이 학교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해외선교와 이민교회 미래 위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해 주세요”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교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상명 총장)가 개교 37주년을 맞아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17일 오후 6시 30분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후원의 밤은 200여 명의 재학생과 동문 및 교단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미주 지역에 세워진 한인 신학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미주장신대는 1977년 9월 1일 나성영락교회 교육관에서 첫 수업을 시작한 이래 6백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해 오며, 이민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한 리더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6대 총장인 이상명 박사 취임과 함께 양질의 신학교육, 맑고 역동적인 영성교육, 섬김의 글로벌 리더십 교육, 복음의 눈으로 세상 읽기를 위한 인문학적 교양교육, 실제적이중언어교육 등 5가지 비전을 내걸고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를 세워가고 있다. 아울러 현재 미주장신대는 성서대학교협의회(ABHE) 정회원,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 상태다.

이날 이상명 총장은 “해외선교와

이민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양질의 신학 교육을 통한 신실한 인재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비전이 제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학교의 비전이요, 이민교회 전체의 비전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이 세대를 향한 명령이다”며 “이 거룩한 비전에 참여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후원 요청 메시지를 전한 김승현 전도사(재학생)는 “미주장신대는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연한 순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불타는 곳이다.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는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이 곳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의 힘을 실어 달라”고 전했다.

미주장신대 이사장인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는 후원 요청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는 이 미국을 다시 살릴 사명을 우리 한인교회에 주셨다. 이를 위해선 한인교회가 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며 “이런 리더를 길러내는 미주장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해 달라”고 전했다.

김나래 기자

글로벌 교회 + 로컬 교회 = 글로컬 교회

선교적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통해 중국회중도 생겨났다. 아름다운교회는 이들이 성장하면 모두 독립시킬 계획이다. 선교의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중국과 일본 선교가 아름다운교회 안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다.

2. 교회 간 경쟁? 불신자들은 어쩌고?

뉴저지 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는 자기 반성으로 강의를 열었다. 그는 열 가정과 함께 17년 전 교회를 개척해 현재 2,500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냉철하게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니 전 교인의 85%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즉 수평이동으로 교회가 성장했던 것이다. 그는 “교회는 (선교사를) 보

내는 존재이면서 이미 (커뮤니티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면서 교회가 있는 지역 내에서 영적 권위를 갖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러브 뉴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멀리 나가서 선교는 하지만 정작 바로 옆 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뉴저지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연합해 복음을 전하는 순수 전도 운동이다. 그는 수평이동으로 교회 간에 경쟁하지 말고 새 생명을 구하는 불신자 전도에 집중하고 있다.

3. 말로만 하지 말고 섬김으로

김동일 목사가 시무하는 생명

찬교회는 교인 수는 100명 내외이지만 하는 일의 스케일은 좀 “다르다.” 이 교회는 수년 전부터 “애플트리”라는 여름캠프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를 섬겨 오다 이제는 카페를 개업(?)했다. 누구라도 커피향을 맡아 들어오면 크리스천의 향기도 맡게 된다.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 고용의 기회를 주며, 카페 수익금은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된다. 곧 “따뜻한 밥상”이라는 저가 식당도 열고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를 맡겨 놓고 잠깐이나마 쉴 수 있는 어머니-어린이 카페도 준비 중이다. 사랑하자 말만 하지 말고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교회의 주요한 선교 방법이다. 김준형 기자

나성소망교회에서 무료 간염 검사와 요리 대회

나성소망교회(김재울 목사)에서 300불 상당의 B형, C형 간염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진단과 함께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이 행사는 세인트 빈센트 메디컬 센터 내의 아팍 간 센터가 주관하며 23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 월셔팍초등학교(4063 Ingraham St. Los Angeles)에서 있다. 또 이 교회는 남성 성도들이 ‘남자 금 대회’라는 요리 경연도 같은 날 펼쳐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도 갖는다. 문의) 213-550-7377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동명하이마트-서부인삼빌딩) T.323.737.8888

Fullerton 지부: 1701 W Orangewood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이리왕마케팅) T.213.453.6624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선교와 회복을 위한

창립 35주년 추계 대부흥집회

주제: **회복되게 하소서**

날짜	시간	본문	제목
11/28 (금)	저녁 7:00	요한복음 3:16-17	구원이란 무엇인가?
11/29 (토)	새벽 6:00 저녁 7:00	베드로 전서 5:1-6 사도행전 1:6-8	은혜가 내리는 사람 성령을 받으면
11/30 (주일)	오전 8:00 (1부 예배)	마태복음 20:1~16	하나님의 공평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3부 예배)		
	오후 6:00	마태복음 28:16~20	한국 교회의 과거와 미래

강사: 이필재 목사
한국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역임
토렌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역임

· 새벽강단 70

하나님의 은혜



박성도 목사
LA선교교회

본지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 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소망하고 있다.

LA선교교회 박성도 담임목사는 1989년부터 자비량 선교를 시작해 24년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2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안식년으로 LA에 온 뒤, LA선교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고 있다.

박 목사는 "24년간 한인교회의 지원으로 원주민 사역을 했다. 지원에 대한 사랑의 빛을 값으려는 심정으로 개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LA선교교회는 흔히들 생각하는 평범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선교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 전했다.

그는 지난 14일 금요일 새벽강단에서 고후 6장1-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은혜 (고후6:1-13)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불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속에 존재하는 동식물 가운데 무엇 하나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1)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주님을 먼저

높이고 자신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공중으로 높이 올라 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처럼 스스로 높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어 드는 것입니다.

고만하여 스스로 높아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물이 거슬러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롬 12: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2)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날 그날 다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 받은 은혜는 그날에 사용되고 다음날에는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루 1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매순간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르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의 만나를 그날에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일 받아야만 살아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배반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감사치도 않고 자신

의 뜻대로 구습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지렁이는 눈, 코, 입도 없는 것 같은 미물인데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조상 대대로 열심히 땅을 뒤집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보다 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갑니까? 마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돈을 모으는 데 있는 것처럼 죽기 살기로 삽니다. 아무리 나그네 인생이라고 가르쳐도 여기를 영원히 거할 천국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길어야 백년 살 이 땅의 삶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다 바치고 영원한 천국 삶을 위해서 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드릴 물질도,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증거입니다. 썩어질 것이요 두고 갈 것뿐인 줄을 알면서 그것에 마음이 붙잡혀서 움작 달작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증거입니다.

3. 한번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물이나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물이나 공기가 없으면 생명을 잃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죽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은 생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자”

한 목소리 내기 운동 원보이스(One Voice) 중보기도사역 세미나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에서 열렸다. 라이트 하우스(Light House in LA) 주관으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중국선교사로서 뉴라이프교회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상해 기도의 집을 섬기고 있는 이재진 목사, 비블리컬 트루스의 설립자 타마라 잉슬로우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또 이수경 사모(미주비전교회 중보기도사역자)와 김정애 목사(라이트 하우스 대표) 등도 강의를 맡았고 ANC온누리교회 이철 목사가 찬양을 인도했다. 이 기간동



세미나를 마친 후, 강사 이재진 목사, 김정애 목사, 이수경 사모 안 총 7년의 집회와 성회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또 함께 중보기도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문수현 기자

독거노인 섬김 고생하셨습니다!

매달 둘째 목요일마다 방주교회(김영규 목사)가 중앙무터교회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점심 식사” 행사를 섬기던 자원봉사자들이 올림픽 경찰서를 통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수여하는 커뮤니티 봉사상을 받았다.

사진은 봉사상을 받은 자바의 류업체 (네이카드 지브라)의 씨니 전 사장(좌)과 한미은행 다운타운지점의 주디 리 지점장(우).



승고한 삶의 마무리도 타인을 위해



소망 소사이어티가 시신 기증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추모식을 개최했다.

15일 UC어바인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소망 소사이어티와 UC어바인 시신기증 프로그램이 주최한 기증자 추모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시신기증자 가족 및 관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의 서창석 해부학 교수(소망 소

사이어티 후원이사)는 기증자들에게 “승고한 삶의 마무리에 감사드립니다. 기증자들이 학자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증자의 가족들이 나와 고인을 추모했다. 현재 매일 10명에 가까운 한인 신장자들이 UC어바인 시신기증 프로그램에 접수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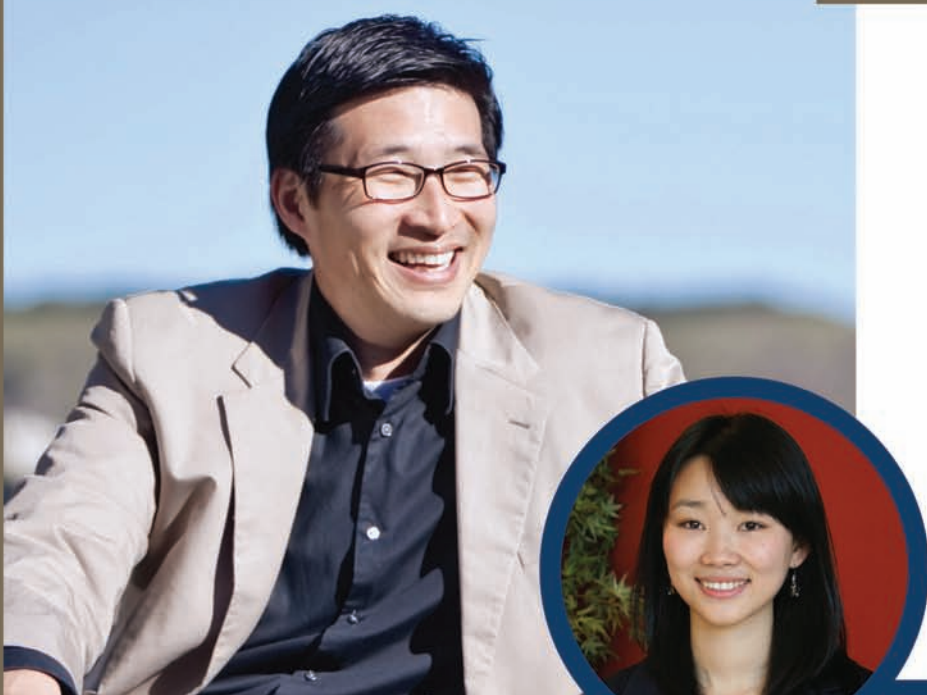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가정천국 영적 공동체

서편 128: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앙 가정의 가장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사 라와 함께 신앙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처소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 천국이기에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믿음이 성숙한 상태일 때는 자기 형편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유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준을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감사의 조건을 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준을 그러한 것들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1절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敬(공경할 경), 畏(두려워 할 외)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진심으로 섬기고파 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드리지 않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도록 만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하지만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분으로 알고 지극 정성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에서 道(길 도)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실천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최고의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픈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마자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

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보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먹지도 입지도 마시지도 쓰지도 않고 쌓아놓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죄인이 하고 그 죄인이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어떤 복이 시작되느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라 보장 받는 것입니다.

또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도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네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진정한 신앙가정의 모습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믿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잘 영글었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자기 믿음만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힘도 없이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영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태어난 어린 자식들까지 성령이 충만한 영적 자녀들로 잘 양육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더 잘 섬기고픈 소원, 그런 가정을 모신 데다가 그 가장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과 가정에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은 형통하도록 해서 네가 수고한대로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분복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포도송이처럼 아주 알차고 탐스럽게 잘 영글은 결실한 그런 모습이고 자녀들도 어린 감람나무처럼 순수하게 자기 의지나 주장이 없이 완전히 성령에 점령되고 충만한 모습으로 표현하며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진리 정통한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

기는 신앙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끌어 가고 있고,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는 그 진리 정통한 믿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탐스럽게 결실해 잘 영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내외가 믿음이 아주 모범적이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로 실천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있을찌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다윗을 통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적 지시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인 곳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입니다. 영적으로는 신약시대의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정통한 교회를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진리 정통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한 신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픈 신앙심에서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복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교육과 훈련을 바로 그가 속한 진리에 정통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드나들면서 영적 지도를 목자로부터 제대로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픈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가정을 이끌어 가며, 그 가장의 신앙이 신앙 가정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아내는 잘 영글은 포도송이 같고, 어린 자식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어린 감람나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영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곳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천국을 이루어 주는 곳이 어디냐. 그들이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3. 올바른 믿음의 특징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이까 하리니”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이끌리며 그 목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 출발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앞으로 아내는 진리와 성령으로 탐스럽게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되고 자녀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이 된다면 가정은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복을 누리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 받는 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장).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ongeui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PARAGUAY CHRISTIAN PRIVATE SCHOOL

파라과이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선교에 Heart 있는 영어 & 수학 선생님 모집합니다.

<자격>

현재 대학 졸업생 아니면 졸업반.
주일학교 경험자.
교사 무경험자도 Ok.

Colegio JIS
Ciudad del Este, Paraguay

기간 : 02.05.2015 ~ 12.05.2015

비행기 왕복 + 비자 비용 + 현지 선생님과 같은 사례비 + 숙식 제공

Eunice Han
Tel. 213)505-5040
Email : eunicehan@gmail.com

쉬지 못하는 '쉽' 의 저자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쉬지 못하는 '쉽'의 저자. 요즘 저에게 붙어 다니는 별명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스케줄이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앉아서 몽상할 시간도 없어서, 저는 나름대로 '죄지를 시간도 없다'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은 뻑뻑한 저의 스케줄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뛰어가는 길은 너무나 즐겁고,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행복해서 몸이 부서져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를 20년 넘게 해 왔지만 여전히 설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충실히 준비 못할까봐 늘 조바심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꼼꼼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웬만한 것은 대충 넘어가는 융통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만큼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성격을 넘어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신학교 전 4년 반 동안(여름학기 포함) 공부한 이유가 설교 한 편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 이후 결코 말씀 준비와 선포에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의 쉽은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영적 충전과 쉽의 시간입니다. 제가 휴가를 간다면, 휴가 내내 말씀 묵상만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가족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가 다녀온 후, 피곤해서 쉬는 부작용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방콕(방에 록 들

어박혀 지내는) 휴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다'하시며 별로 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던 주님은 아마, 그때 쉬셨을 것 같습니다. 잠보다 더 좋은 기도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임재 깊은 곳에 들어가 쉬는 경험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쉽은 멈춤이 아니라, 동행인 것이 정말 맞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충전되고, 회복되는 쉽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저에게 절대 브레이크(잠)를 주지 마세요. 주님과 계속 동행하며 걷게 해 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기도시간을 즐기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의 묵상과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운동이 저에게겐 쉽입니다."

다민족연합기도회와 기도 한국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지난 11월 11일 일바인에 있는 버라이전 앤피티어에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있었다. 2011년에 파사데나의 로즈볼에서 있었던 11.11.11에 이어 3년 만에 갖는 행사였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장소가 여러차례 바뀌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버라이전 앤피티어에서 결정된 것이 불과 일주일도 안된 까닭에 행사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장소가 LA에 비해서는 조금 외진 오렌지카운티 지역인 까닭에 인원 동원에도 적지않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소감으로는 이번 집회는 내가 참가해 본 대중기도 집회 중 가장 은혜스러운 집회였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다. 대중기도 집회인 데다 야외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까닭에 산만하기 쉬울 수 있었던 기도 집회는 웬지 처음부터 은혜가 물 흐르듯 풍성하게 느껴졌다.

집회를 준비하는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과 더불어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한 결과였을 것이다.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선거를 통해 당선된 영 김 주하원의원과 최석호 일바인 시장 두 분의 인사가 있었

다. 두 분 모두 정치인인 까닭에 그저 정치적인 인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뜻밖에도 두 분의 인사는 진실된 신앙고백이자 간증과 같았다.

영 김 의원은 주의회에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기도를 부탁했고 최석호 시장은 일바인 시의 공식 모임에 참여하던 기도를 회복했다는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들을 듣는 순간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는데, 늘 하던 찬양인데 웬지 가슴이 더 뜨거워졌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다.

3년 전과 다른 것 중 하나는 기도 순서에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동참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목사님들의 기도도 은혜로웠지만 젊은 학생

들의 기도가 어찌나 순수하고 열정적인지 절로 은혜가 되었다. 사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야외에서의 두 시간 기도 집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조금 우려하기도 했지만 기도시간이 진행되면서 그런 우려들은 씻은 듯이 말끔히 사라지고 떠나 할 것 없이 기도에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진행하는 분들이나 참여하는 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감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다민족이 모인 집회이지만 한국 분들은 으레 마음을 모으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른바 주여 삼창은 이런 대형기도 집회에서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래서 그런지 3년 전에는 어느 흑인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인도하시기 전에 한국말로 '주여!'를 외치셨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은혜가 되었다. 역시 여러 민족이 함께 모이고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기도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 11.11에서도 그랬지만 이 기도의 은혜와 은사를 잘 발휘해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 전 세계가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성찬의 의미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때이다. 유월절 잔치 전날, 온 도시가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붐빌 때에 10여 명이 되는 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유월절 잔치를 시작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유월절은 절기의 식사모임이다. 그러나 보통 식사가 아니라 해방을 기념하는 식사이다.

유월절의 유래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에 가졌던 마지막 식사이다.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먹을 만큼의 적당한 크기의 양을 잡아서 효모를 섞지 않은 떡과 준비한 포도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는 흥분하면서 가벼이 먹을 수 있는 잔치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날 저녁에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은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죽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제자들과 예수님도 이날 의미심장한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제자들은 유월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로마에서 해방을 쟁취할 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

이제 제자들은 로마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며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위대한 해방의 밤에 예수님은 떡을 찢어 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신다.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다. 가룟 유다는 새로운 국가건설의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로마와 싸우지 않는 스승 예수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도 스승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에 놀랐고 황송해 하면서도, 숨겨진 스승의 비상한 능력과 신비한 기적을 끝까지 기대하여야 할지 혼돈스러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새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새 나라는 예수 자신을 먹고 마

심으로 세워진다니, 그 뜻을 알 듯 말 듯 하였다. "이 피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떡은 너희의 영생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것이 해방이라는 말인가? 이것이 승리라든 말인가? 그날 저녁 스승은 이 신비한 식사를 나누고 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체포되었다. 밤새워 심문이 계속되고, 유월절 오후 3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였다. 허탈감이 엄습하는 제자들의 뒤로 "다 이루었다"는 스승의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다음 유월절까지 해방을 고대하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3일째, 예수께서는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다.

메시아는 살아서 제자들과 동행하였으며, 40일째에는 승천하셨다.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오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모세의 첫 유월절 이후 새 나라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시작된 것처럼, 첫 성찬식 이후 새 나라가 메시아의 삶과 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삶 속에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후 매년의 유월절은 우리가 자주 드리는 성찬식이 되었다.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사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뱃속을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에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까지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 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위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교통 중 M3세트 복용 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교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 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 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나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혜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교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 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팩(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했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사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은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29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뇌경색이란 한마디로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 뇌출혈이란 뇌경색과 달리 혈관이 터진 상태를 말합니다. 뇌출혈 예방과 치료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심장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혈액을 보내주는데, 혈관에 어혈 그리고 노폐물들로 인하여 혈액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게되고 이로인하여 혈관이 부분적으로 고부 풍선처럼 부풀어지고 약해진 부분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만 건강해지면 자연적으로 짧은 기간에 예방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혈액에 이상이 있으신분들은 반드시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을 드셔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 보신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늘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나오는 첫째계명과 둘째계명의 비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1.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첫째계명을 지키실 이는 사람들 많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하신 말씀의 뜻을 모르면 정확히 지키실 이는 사람들 이 세상에 거의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지킬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첫째 계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둘째 계명의 주인은 이웃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면 두계명을 모두 지키실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웃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36절 21.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 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하는 이웃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돈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값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내용을 알듯하면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혼이 비참하게 된 자들로서 성스러운 예루살렘에서 죄악의 세상 여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의 일음하는 사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시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포도주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막으로 간접표현 하시면서 사랑과 진리라는 두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내가올때까지 돌보아 주라는 교회의 사랑과 부리가 더 들면 재림하실때 상급으로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계명과 둘째계명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계명을 자유롭게 지키실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일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영양제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엘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로렌하이츠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중남미서 개신교인 증가... “하나님과 친밀함 원해”

아라파트 PLO 전 의장

도덕적 이슈에 대한 보수성과 오순절 계통 예배도 한몫

“생전에 크리스천 됐다”



뜨겁게 기도하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모습

로마가톨릭에서 복음주의 개신교로 개종하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3일 보도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원하기 때문이다. 퓨포럼(Pew Forum)이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해 라틴 아메리카 지역 19개 국가를 상대로 종교적 친밀성과 신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69%가 가톨릭 신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60년대 90%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조사를 실시한 모든 국가에서 가톨릭교회는 감소세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가톨릭교인들이 복음주의 개신교회에 출석하게 됐거나 사람들이 기존 종교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성인 84%가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보다 15% 많은 수치다. 이에 반해 개신교 신앙으로 양육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은 9%였는데 현재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9%였다. 이전에 가톨릭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8가지 문항 중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성을 원해서’라고 대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또 많은 개종자들이 ‘다른 형태의 예배’와 ‘교인들을 더욱 많이 도울 수 있는 교회’를 원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건강, 가족 간의

문제, 비가톨릭 신자와의 결혼 등이 꼽혔다. 개신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전도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로 개종한 이들 중 50% 이상이 “교회에서 먼저 자신을 찾아왔다”고 응답했다. 연구 결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개신교인들은 다른 이들과 자신의 신앙 나눔에 있어 가톨릭 신자들보다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정학적 유동성 또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거주지가 바뀌면서 개종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25세 이전에 가톨릭교회를 떠났다. 라틴 아메리카 개신교의 보수적 성격도 또 다른 요인이다. 이곳에서 가톨릭은 낙태·동성애·피임·혼외정사·결혼·알코올 등에 반대하는 이들의 비율이 개신교보다 낮다. 퓨포럼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이 “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인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들은 ‘도덕적인 삶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 특별히 치유, 방언,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 계시 등의 특징이 있는 오순절(순복음) 계통의 예배가, 이 지역에서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곳 개신교인들의 2/3 가량이 오순절 계통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강혜진 기자

지난 2004년 사망한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전 의장이, 생전에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천 저술가로 유명한 R.T. 캔달(R.T. Kendall) 목사는 최근 프리미어크리스천리티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 11월 11일 야세르 아라파트와 함께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을 보았다. 당시 그는 영화를 보면서 분명 눈물을 흘렸고, 5번의 만남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 더 듣고 싶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캔달 목사는 “그를 천국에서 본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를 위해 5번 기도해 주었고, 기쁨으로 안수해 주었으며, 영접 기도를 해 주었다”고 밝혔다. 아라파트 전 의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을 종식시킨 오슬로 협정을 이끌낸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4년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시몬 페레스(Shimon Peres)와 더불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재임 시절에는 많은 분쟁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아라파트 전 의장이 75세로 사망하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며 애도했다. 독일 유슈카 피셔(Joschka Fischer) 외무상도 “그

의 삶은 기구하고 비극적인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평화를 대변했으나,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의 절망과 역사의 지연을 초래했다”고 했다. 당시 세계교회협의회(WCC)도 성명을 통해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하나되게 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며,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조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한, 그의 특별하고도 끈질긴 헌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교회협의회는 “우리는 거룩한 땅(Holy Land)의 교회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사회와 미래를 위한 그의 헌신을 기릴 것”이라며 “아라파트는 ‘모스크와 더불어 교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에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라파트 전 의장은 75세이던 2004년 11월, 프랑스 파리의 군 병원에 입원한 뒤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한 달 만에 숨졌다. 순헌정 기자



아라파트 PLO 전 의장

프랭클린 그래함, 美 국립성당의 무슬림 기도회 비판

“예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국립성당에서 첫 무슬림 기도회가 열리고, 한 크리스천 여성이 홀로 이 집회에 반대하다가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미국 교계의 대표적 지도자이자 보수주의자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래함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나, 다른 것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의 문을 열어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요 14:6)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글을 올렸다. 워싱턴국립성당에서 진행되는 예배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예배는 종교적 관용을 강조하고 신앙인들의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당시 미시간 출신의 크리스틴 웨이크(Christine Weick·50)라는 여

성은 예배를 알리는 방송이 나온 직후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라. 왜 당신들의 모스크에서 예배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교회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목사와 보안요원에 의해 쫓겨났으나, 교회 밖에서 계속 시위를 이어갔다. 그녀는 “난 체포되지 않았고 시위 당시에도 해를 입지 않았다. 시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무슬림들에게도 해당된다. 난 무슬림들을 사랑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러나 “미국 내 종교의 자유 문제에 관련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사람들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주장하면, 난 ‘공정하게 겨루자’고 말한다. 즉, 그들의 모스크에서도 성경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내가 모스크에서도 성경을 들고 거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왜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미시간 디어본의 가장 큰 모스크에서 부활주일 철야기도회를 개최할 수 없는가? 무슬림들은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독교와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배 도중 무슬림인 에브라힘 라술(Ebrahim Rasool) 주미 남아프리카 대사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세계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땅을 침범하고, 언론인들을 참수하며, 시민들을 죽인다. 자신들과 다르다면 그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전쟁을 선포한다”며 일반 무슬림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워싱턴국립성당의 지나 캠벨 목사는 “워싱턴국립성당은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이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마음을 더욱 넓혀서 깊은 자비를 구하지”고 했다. 강혜진 기자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찰리 정

P-H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젊은 기독실업인회 회원들 전국에서 뭉쳤다

제1회 북미주 yCBMC 컨퍼런스 'Back to Basic' 성료



제1회 북미주 yCBMC 컨퍼런스의 취지에 대해 설명한 권석원 북미주yCBMC연합회장

제1회 북미주yCBMC(회장 권석원, Young 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컨퍼런스가 'Back to Basic'을 주제로 애틀랜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성료됐다. 지난 6일(목) 시작해 8일(토)까지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이어진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 전역에서 약 30여명의 yCBMC 임원진들과 회원들, CBMC 관계자들이 자비방으로 참석했으며, 애틀랜타 yCBMC(지회장 진명선) 회원들도 생업을 제쳐두고 헌신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우리가 모르던 CBMC', 'yCBMC 특강'과 함께 전도와 양육을 미션으로 하는 컨퍼런스 동영상 시청, 팀빌딩, 그룹 디스커션, 회원 간증, 사역자 간증, 사업체 심방, y 비전 선포 등 다양하고 유익한 시간들이 진행됐다.

특별히 금요일 오전과 저녁 강의 사이에는 두 팀으로 나눠 총 6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찬양과 축복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CBMC를 처음 시작했던 CBMC USA는 1970년대부터 사업장 방문(Office Visitation)을 실천해 왔으며,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인 만큼 기본으로 돌아가 이를 적극 실천한 것이다.

무엇보다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북미주 yCBMC 측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애틀랜타 지회에 힘을 실어주고, 다시 한번 CBMC의 기본을 점검할 뿐 아니라 yCBMC만의 특성과 비전을 세우기 위해 북미주 최초로 열리는 yCBMC 컨퍼런스인 만큼 기대와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됐다.

진명선 지회장은 "yCBMC 임원진들뿐 아니라 회원분들이 애틀랜타 지역을 사랑하셔서 모든 컨퍼런스를 자비방으로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 회원분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애틀랜타 yCBMC에 큰 축복과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이 도전 받으시고, 다시 한번 더 정체성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최예배에서 여호수아 1장 5-9절을

본문으로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 말씀을 전한 정인수 목사는 "yCBMC 여러분들은 CBMC의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다. 변화무쌍하고 위기가 가득한 시대,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 때를 살고 있다. 이런 시대 마켓 플레이스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나? 직장과 사업체에서 실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 자리가 귀하다"고 격려했다.

이러 정 목사는 모세의 사후 리더십을 이어 받은 여호수아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 찾게, 말씀묵상, 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인 힘을 키웠다. 둘째, 따르는 자들과 생각과 문화, 스타일이 다를 때 오는 공격과 비난, 비방에 대해 위기를 관리하는 리더십을 키웠다. 셋째, 리더십을 이어받을 리더들을 계속 기르는 리더십의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고 설명했다.

"CBMC 회원들은 모두 현장 신학자들이다. 삶에서 겪은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신앙으로 승화하는 이야기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고 승리한 것들을 모임을 통해 나눔으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강력한 지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한 정인수 목사는 다시 한번 "외적인 평가나 열매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나아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든 컨퍼런스 순서를 마친 후 제1회 yCBMC 컨퍼런스의 발단이 되는 데 기여한 4명의 전 yCBMC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전체 회원들이 애틀랜타 지회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

권석원 yCBMC연합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yCBMC 지회들이 각 처소에서 회복되고 CBMC의 기본 사명인 전도와 양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미주 내 약 50개의 CBMC 지회 중 10개의 yCBMC 지회가 있으며, yCBMC는 45세 이하 젊은 실업인들을 주축으로 한다.

박현희 기자

PCUSA 서북미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



신임원진. (좌부터) 이형석 목사, 소은일 목사, 이경호 목사, 강성림 목사, 박근범 목사, 안용득 장로, 임희영 장로.

미국장로교(PCUSA) 엘라스카-서북대회 서북미한인교회협의회(이하 KPC)는 지난 11일 타코마연합장로교회(담임 권호준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강성림 목사(평안교회)를 선출했다.

회장에 강성림 목사가 선출된 것 외에도 부회장에 박근범 목사(브레멘 한인장로교회)와 안용득 장로(타코마중앙장로교회), 총무에 소은일 목사(하나장로교회), 서기에 이형석 목사(타코마중앙장로교회), 회계에 임희영 장로(평안교

회)가 임원으로 한 해 동안 협의회를 섬길 예정이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권호준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사무엘상 2:35)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예배 축도는 김경천 목사, 폐회 기도는 소은일 목사가 했다.

한편, KPC는 시애틀 도미 후 시온장로교회에서만 30년을 목회하고 오는 12월 말로 은퇴하는 김경천 목사의 사역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준호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건강한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이래학성찬례대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박일룡 담임목사. 로템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 허규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7시.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정철 담임목사. 새생명한인교회. 주일예배 장년 1부 9:00am, 2부 11:00am, Youth 예배 12:15pm, Children 11:00am.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전 12: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엘버틴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최상준 담임목사. 엘버틴한민음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2: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주일 성경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등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영민민 담임목사. 오래자카운터제일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침례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남성수 담임목사. 오래자카운터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성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김철민 장로.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562) 896-9191, (714) 670-6700. www.lordlight.org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100% 미국 야생 산삼

HQ
山
蔘

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

근 뿌리 근 뿌리
정성스럽게 캐습니다!

미국 야생 산삼
1 파운드 = \$800~\$1,300
+ 특별 선물 무료 증정
HQ구연산과 HQ천연미네랄 회색소금(\$200-\$300상당)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킨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WI, VA, NC주 최상급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립니다

-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매계의 악리작용을 강화한다
-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 8. 각종 간질(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 15. 만성피로나 하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깨끗하며 종기를 식혀줌
-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돌아준다
-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진다
-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LA 본점
(로데오갤러리아 아주관광 볼내)

‘성(性)과 스킨십’ 청년들의 솔직한 질문과 교회의 대답

한국교회탐구센터, <청년 사역자를 위한 청춘의 성> 세미나



<청년 사역자를 위한 청춘의 성> 세미나에서는 청년 대학부 성도들이 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언이 진지하게 오고 갔다.

“과거에 누구와 심각한 관계였다면, 으레 잠자리까지 갔겠구나 생각합니다.”

“믿는 청년들이나 믿지 않는 청년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형제는 성적 습관 때문에 죄의식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전도사님들도 예외는 아니죠. 청년부 자매들과 심각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워낙 성도당이 해이해진 상태라 죄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고,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 사역자를 위한 청춘의 성(性)’ 세미나가 한국교회탐구센터(소장 송인규 교수)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송인규 교수가 ‘청춘의 성, 어떻게 지도할까?’, 김미량 소장(탁틴내일연구소 소장)이 ‘청춘의 성, 상담 사례와 가이드’를 각각 발표했다.

송인규 교수는 사역자들이 실제로 부딪치는 이야기들을 ‘흔히 제기되는 어려운 질문들과 이에 대한 잠정적 답변’으로 내놓았다. 먼저 ‘왕성한 성욕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야 하나’에서는 “보통 남성 청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으로, 물론 남성 호르몬의 분비와 성욕의 발동은 젊은 시절의 자연스런 현상이요 하나님의 섭리적 조치”라며 “불편하지 않은 해결 방안으로 ①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에 의한 성욕의 절제 ②몽정”을 꼽았다.

불편하거나 때로 죄의식이 동반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자위 행위’

를 거론하면서 “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연관한 현상(심리 상태, 포르노, 성적 공상)은 죄일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자위 행위가 죄라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의식과 행위에 국한되므로,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는 성적 활동(스킨십, 간음, 음란행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가 덜 된다고 판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포르노에 빠진(혹은 중독된) 이들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서는 ①인간 및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파악 ②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축적 ③비정상적 성적 쾌락에의 예측 등을 포르노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①포르노가 끼치는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②포르노의 사진이나 영상에 묘사되는 대상의 모습을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부각시키며 ③의도적 사용에 대한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확보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폐기함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런 의도적 사용자도 도움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 자격 조건으로 △고민자에 대한 개인적 관심 △영적 성숙 △고민자로부터 신뢰를 받음 △고민자가 필요로 할 때 함께할 수 있어야 함 등을 열거했다. 도움 방식으로는 예방적 성격의 정기적 점검 기회 마련, 심리상태 악화나 장기 출장 등 고민자의 상황이 바뀔 때 신속한 대응 조치, 다시 과거 습관에 빠져들 때 단호하면서도 사려 깊은 징계 처분을 통해 적절한 교화 시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꽤 많은 경우 이런 습관은 오래 되거나 중독 정도로

분류돼,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 친구와 새롭게 사귄 때, 과거 관계를 고백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이 발전해 약혼 단계에 이를 경우의 문제로, 이상적·원칙적으로는 과거의 관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필요하면 용서를 구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좋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 이런 식의 완전한 고백이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백을 들은 상대방이 심리적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의처(부)증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만일 과거에 대한 고백을 당사자에게 할 수 없다면, 또는 고백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매우 괴롭다면, 비밀을 지킬 수 있고 믿을 만한 상담가나 멘토에게 고백할 수도 있다”며 “물론 가장 좋은 길은 역시 사귀고 있는 대상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고 남성과 헤어진 경우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가’와 관련, 그는 “실제로는 이때 임신 당사자의 부모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는다”면서도 “지도자는 이에 대해 ①당사자가 부모를 설득해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음 ②당사자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음 ③당사자가 부모의 강권에 순응하여 낙태의 방도를 취함 등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송 교수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는 딸의 혼전임신을 집안

치로 여기므로 보통 세 번째 방안을 취하고자 할 것”이라며 “만일 당사자가 두 번째 방침을 취하고 부모로부터 배척당한다면 신앙 공동체가 당사자를 법적·경제적·사회심리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정리했다.

‘동거 중인 커플이 교회를 찾은 경우’에 대해선 “혼전동거는 점점 더 일반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적어도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행습을 지지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조치의 핵심은 그 커플이 신앙과 관련해 어떤가 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들이 비신자이거나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반 상식의 관점에서 혼전동거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어느 정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는 “물론 이러한 설명과 설득은 이 커플과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후 호의적 맥락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교회 청년부 내에서의 이성교제 방침 설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년·대학부가 대체로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와 간섭을 능사로 여기거나 무책임한 방치로 일관하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중도적 방도를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신앙 공동체는 형제·자매가 건전하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이 돼야 한다”며 “지도자는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대화·상담·조언을 베풀고, 사귀고 있는 지체들이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공동체적·개인적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성교제를 시도하는 청년들은 사람이 깊어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도자와 상담하도록 훈련돼야 하고 여기서는 선배들의 모범이 중요하다. 사귀는 이들은 지혜와 인내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자유를 너무 제약받아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공동체 내의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는 “깊은 사람으로 접어들기(going steady) 전에 지도자에게 알리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하고 언제 공적으로 표명할지 현명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구성원 사이에 위화감이나 배타성 배태 가능성을 경계하는 등 상호간 조심·이해·용납이 있어야 한다”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들끼리 사귀는 경우 다른 이들의 시기심과 섭섭함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사귀는 두 사람을 ‘왕따’시키면서 그룹 단위의

보복을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또 “대학·청년부 사역자들은 자신들부터 모범이 돼야 하고, 특히 성적인 면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자신뿐 아니라 책임진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됨을 알아야 한다”며 “이성의 청년부 지체에 대한 자세가 깨끗해야 하고(딤후 5:2), 후시 청년·대학부 지체와 사귄 경우에는 데이트·스킨십 등에 있어 깨끗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교회 청년부나 선교단체 소속 젊은이들은 이성교제와 스킨십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한다”며 “언급했듯 이성교제와 데이트, 스킨십 역시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행하도록 훈련하고, 세상과 달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성교제와 만남’을 갖도록 지도자들이 자극하고 사명을 고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있는 교회 내 성 교육 및 상담 필요성도 제기했다.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①그리스도인의 연애 과정 ②남녀 간의 신체적·성심리적 차이 ③이성교제와 데이트 ④스킨십 허용·금지 범위 ⑤성행위의 기독교적 의미 ⑥순결의 의미와 중요성 ⑦결혼: 기독교적 특이성과 이에 대한 준비 ⑧성적 범죄 범주 및 회개·자백, 사죄·용서 ⑨원하지 않은 임신 ⑩동거 문제 ⑪왕성한 성욕에 대한 대처 방안 ⑫동성애 문제 ⑬포르노 중독 ⑭자위 행위 ⑮과거에 대한 고백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교회에 이성교제 관련 청년사역 전문가 및 상담가가 준비돼야 한다”며 “개교회를 넘어 교단과 신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이대웅 기자



송인규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공 고

음악 저작권 침해는 불법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 (CCM)저작권 사용에 따른 징수 권리를 가진 퍼블리싱 컴패니 (주)엘로힘 이피에프 USA는 2014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 음악 및 교회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진 등록을 공고합니다.

1. 교회에서 찬양을 사용할 시 이제는 저작료를 내셔야 합니다. 안 내면 불법입니다.
2. 교회에서 사용 되는 복음성가곡은 저희 Elohim EPF USA에 내시면 됩니다.
3. 저작료에 대한 것은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Elohim EPF USA는 자진 등록 기간에 등록된 교회에 한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 광고 내용 —

등록 대상: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CCM)을 사용 하는 모든 교회
 등록 기간: 2014.12.31
 등록 방법: 웹사이트 등록
<https://elohimepfusa.com>
 Tel. (213)736-0073
 문의처: 문의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Independent Music Publishing and Licensing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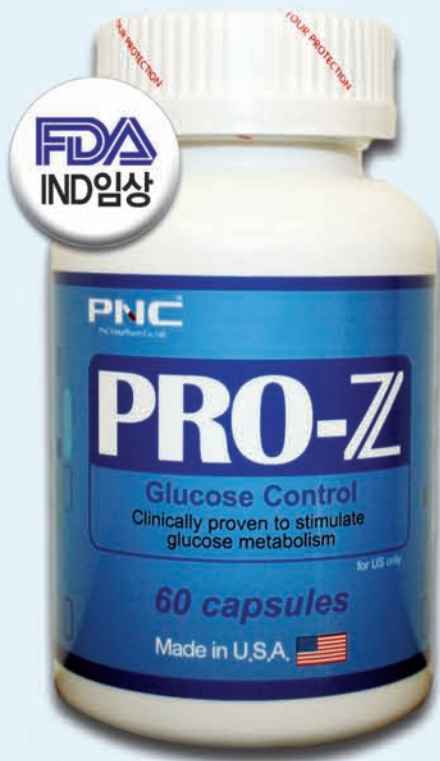
Tel. (213)736-0073 <https://elohimepfusa.com>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Special Price

✓ 한국 30만명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족, 신장부족, 간독성)과 광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은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 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졌.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 엘바인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
- Mother's Care Pharmacy : 213-739-3030
6th Zion Market
- Vermont Galleria Pharmacy : 213-388-4100
벌몬 갤러리아몰
- Virgil Pharmacy : 213-384-1200
그랜드스파 건물내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따뜻한 정이 그리워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유는 그 만큼 정에 굶주렸기 때문이다. 정에 대한 견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한 친지가 작은 햄버거집을 열었다. 주위에 있는 몇몇 친구는 될 수 있으면 그 집을 찾아가 음식을 팔아준다. 난 A 주유소에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직원 J는 무뚝뚝한 표정에 말도 차갑다. 그러나 다른 직원인 S는 항상 밝게 웃으며 손님을 정겹게 대해준다. 내가 가능한 한 S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그에게서 따뜻한 정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아이폰 등의 전자제품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 받으며 정을 나눈다. 하지만 일부는 고양이나 개 또는 새를 통하여 정을 주고 받는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정이 가장 깊지 않나 싶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하여 찾아 나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도 간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때도 많다.

나는 얼마 전에 뜻밖의 정을 느낀 경험이 있다. 우리 부부가 늘 가는 헬스 센터 주차장에서 60세 전후의 한 동양 부부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Are you Korean?”이라는 질문에 “예, 한국사람입니다” 하자 반갑다며 자기의 이름을 황00라고 하며 옆에 있는 남편에게 자기집 전화 번호를 우리에게 주라고 하며 자주 연락하자 했다. 나는 기쁘면서도 당혹스러웠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집 전화번호를 주며 자주 만나

자니? 이 곳에 자주 오느냐? 어디 사는냐? 자녀들이 가까이 있느냐? 한국교회에 나가느냐? 등 기본적인 정보를 교환하면서 내 머리에는 몇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저 분들 혹시 여호와와 증인 아냐? 사업하면서 우리를 손님으로 삼으려고 하나? 아니면 내가 60년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길에서 한국사람을 만나면 너무도 기뻐서 서로 자기집으로 초청하듯 그런 경우인가? 그 집 전화 번호를 받으며 우리 번호도 드렸다. 호기심 많은 내가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자 곧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호기심이 더 발동했다.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즉석에서 만든 칼국수를 맛있게 먹으며 긴시간 대화를 하게 됐다. 내가 혹시나 하고 의심한 부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순수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을 퍼주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분들이 그렇게 된 동기가 있었다. 아들 셋이 모두 버클리 대학을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고 막내는 전교 학생회 회장을 할 정도로 리더

쉽이 강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나이 30대에. 그렇게 잘 생기고 공부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던 아들을 잃자 모든 것이 그대로 무너졌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듯 그 아픔이 조금씩 사그라져갔지만 여전히 깊은 상처는 남아있었다. 어느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먼저 간 아들은 천국에 간 것으로 믿고 현재 있는 두 아들과 더불어 열심히 살면서 남들에게 도움주는 일을 하리라 다짐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방법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먼저 인사하고 차라도 한잔 내놓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들의 아픔이 치유된다고 했다.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같이 한 집에 사는 두 아들이다. 깊은 상처를 입은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가능한 한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며 때로는 어리광도 부린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10세 미만에 미국에 온 이 젊은이들이 한국말과 영어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때로는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보다는 평범하고 소박한 분들에게서 따뜻한 정을 더 느낄 때가 많다.

따뜻한 햇빛이 있기에 만물이 생존하듯 따뜻한 정이 있는 곳에 사람 사는 맛이 있다. 오늘도 나는 정을 찾아 문을 나서면서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데에 인색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다.

새로운 방법으로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지난 주에 아틀란타에서 열렸던 OM선교회의 이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모임은 특히 OM USA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 열리면서 미국 선교 리더들과 함께 교제하고 선교에 대한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선교도 이제는 새롭게 변화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영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변화 가는 세상에 맞춰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을 항상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같은 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계속한다면 교회는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때 부흥하였던 교회라 할지라도 끝없는 변화의 시도를 하지 않다 보면 교회는 역사만 남고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도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 세상을 담고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계속 변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 간 저는 많은 비즈니

스들이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닥회사가 그렇고 큰 책방이었던 보더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블락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비디오 스토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때 큰 호황을 누리던 회사들이 변화가는 세상에서 같이 변화 나가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잘 지키고 잘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 질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 읽은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더 잘 간직하고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가득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도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비뽑기



신상욱 장로
토렌스장로교회

아들의 피 값으로 세운 교회가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서 성도가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도하기가 민망할 정도가 되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사람을 세울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집사를 선

출할 때이다. 담임목사 청빙은 빈번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큰 분란의 요인이 되고, 거의 해마다 이루어지는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교회에서 인간 관계를 와해시키는 주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초대 교회 시대에는 믿음, 학력, 경력, 환경 등의 차이로 그래도 인물의 판단이 쉬운 편이었다. 요즘은 학력과 경력이 비슷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장로, 집사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면 선출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삼상 16:7)”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며 분명하지 않은 선정 기준으로 결정

할 경우 원망과 불만이 생길 수 있으며 그래서 교회마다 공천 작업이 끝난 후에는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롬 12:2)을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제비뽑기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무론하고 일례로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대상 25:8)”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인본주의 방법인 투표를 도입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

이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당을 지을 수밖에 없고 득표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교회에 쌓이면서 벽이 생기고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잠언 18:18)”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이사를 세우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지 못한 대가는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성경에서 땅의 분배, 제물, 군사, 일꾼의 선택 등 수십 군데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그 방법을 채

택하지 않고, 모든 교회에서 투표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면 분명 책임질 일 즉 분란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고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 주셨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언 16:33)”

그리고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정하는 일까지도 제비뽑기로 했다.

“제비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 가니라(행1:26)”

제비뽑기를 실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행할 때 하나님이 교회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다.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제임스 앨런 | 판미동 | 204쪽

생각의 방식을 바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잠언 형식으로 들려준다. '생각의 힘'을 최초로 발견·전파하여 <시크릿> 등에 영향을 미친 '신비의 작가', '인생철학의 아버지'의 첫 저작.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이해하고, 제한된 외부 조건을 극복하는 내면의 힘을 길러, 지속적 성장과 행복을 누리는 60가지 방법을 설파한다. 원제 '번영의 길(The Path to Prosperity)'.



습관 교육
이마무라 사토루 | 좋은날들 | 224쪽

'부모의 습관이 바뀌어야 아이의 습관도 바뀐다!'는 슬로건 아래, 당장의 시험 성적보다 '좋은 습관'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목표와 태도, 인성을 갖추면 성적 향상이 자연히 따라오지만, 나쁜 습관을 가질 경우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이를 성장시키고 망치는 부모의 습관에 대해 각각 자세히 소개하고, 아이의 성취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7가지 조건 등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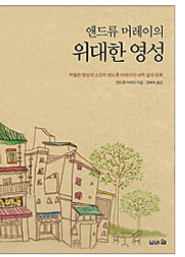
샘병원 이야기
이대희 | 흥성사 | 256쪽

샘병원은 '전인지유 선교 운동', Holistic Healing Mission by Onething을 추구한다. 약어로 H2O Ministry. 몸에 앞서 내면에 대한 치유에 우선 초점을 둬으로써, 먼저 하나님 앞에 내면(영혼)이 바로 세워지도록 돕고, 이를 통해 몸의 회복을 경험하는 운동이다. 영성 회복을 꿈꾸는 전인지유, 전인지유를 꿈꾸는 좋은 병원, 그리고 좋은 병원을 꿈꾸는 좋은 의사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앤드류 머레이의 위대한 영성
앤드류 머레이 | 브니엘 | 240쪽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도 중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임하신다. 기도 중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자신을 보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뿌리를 그리스도께 보다 더 깊이 내릴 때 비로소 내면세계는 질서를 회복하고, 기도는 영적 능력을 나타낸다.



REVIEW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퍼즐은 지금도 맞춰지고 있다”

목회 에피소드와 세태를 따뜻한 필체로 전해 온 김병태 목사(성전교회)가 신간 <하나님의 퍼즐(브니엘)>을 펴냈다. 책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부제 아래, 힘든 삶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퍼즐의 한 조각만으로 선불리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우리 삶의 조각들을 모아 멋진 퍼즐을 완성하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퍼즐은 지금도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자는 인생을 '퍼즐'로 비유한다.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지

는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무 대신 숲을 보고 계신다는 것. 불청객 같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의 씨앗이 되고, 악한 자의 횡포로 엉망진창이 돼 버린 것 같지만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일이 풀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급행 열차를 주시지 않았다. 오히려 광야를 거치는 완행열차를 타게 하셨다. 사람들은 토끼와 같은 인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북이와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부지게 세운 야망을 막기도 하시고, 빨리 다다르고 싶은 목적지



하나님의 퍼즐
김병태 | 브니엘 | 272쪽

를 바꾸기도 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기도 하시며, 상처 투성이가 되도록 치열한 싸움을 하

도록 인도하기도 하신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서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퍼즐을 찾으려면, '인생 맵'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낙타 무릎'과 '내적 확신'이 필요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이 세상'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다. 하루살이처럼 '오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더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불필요한 파편'은 없다. 우리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김병태 목사는 <관점>, <희망과 행복을 만드는 회복 레시피>, <흔들리는 그대에게> 등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책들과 <섬김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교인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장로>의 제3 시리즈, <행복한 자녀로 키우는 9가지 사랑의 언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부부, 행복한 동행> 등 가정관련 도서들, <사탄은 당신의 습관을 노린다>, <채우심>, <춤추는 예배자 솔로몬의 축복>, <아름다운 축복> 등 일반 신앙서적들을 출간했다. 이대웅 기자

TOGO & 캐더링 환영
머글래 싸갈래
특석떡볶이 개시!!!

연말연시 동향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도식락

월 복어국 돈까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닭불고기 쫄면구이 오므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갈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크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갈비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뎅백반	금 공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까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	--	---	---------------------------------------	--	--

요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Western Hobart Beverly Blvd.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성경박사원 변행선 원장

<천국 가는 영혼구원 X파일> 출간

영혼구원 완성의 실체를

자세하게 설명



천국가는 영혼구원 X 파일
변행선 | 성경박사원 | 516쪽

변행선 목사(성경박사원 원장, 서울 석촌동 소망교회)가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이 해석되어지네'에 이어 '천국 가는 영혼구원 X파일'을 출간했다

'성경이 해석되어지네'는 현재 기독교방송 CBS에서 2014년 9월 19일부터 2015년 1월 말까지 20주간 본방은 금요일 오후 2시, 재방은 토요일 0시 50분에 방송되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천국 가는 영혼구원 X 파일'은 변행선 목사가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말과 단어로만 알고 있는 영혼구원에 대해서,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진 영혼구원 비밀에 대해서 창조 전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영혼구원 완성의 실체를 찾아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변행선 목사는 "영혼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이사야, 에스겔, 바울을 통해 영혼의 모습과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주시고 있다"며 마음을 40가지의 구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변행선 목사는 이 시대 설교의 문제점을 "목회자들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서 영혼, 마음, 구원이라는 단어만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영혼의 구조와 기능, 마음의 구조

와 기능을 알면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영혼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퍼즐과 같이 분산되어 있으며 또 점진적 구속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영혼구원 완성을 말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며, 변 목사는 성경 66권을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영혼구원의 문제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3장 18-19절의 길이, 높이, 넓이, 깊이로 자세하게 다루었다.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으로 천사의 타락, 죄의 시작, 양심 시대, 출애굽시대, 율법시대 구원계획의 실패부분을 분석하면서 영혼구원의 완성까지 크게 열 부분으로 나누어, 1장 하나님의 작정 구원 계획, 2장 하나님의 형상, 3장 사람 창조, 4장 변질과 부패되는 거룩, 5장 하나님의 영혼구원 계획, 6장 가나안 정복의 비밀, 7장 출애굽과 영혼구원, 8장 가나안 전쟁과 영혼구원, 9장 복음시대의 영혼구원, 10장 영혼구원의 완성, 마지막으로 영혼구원 완성을 이루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 9단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이어령 박사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펴내

양화진문화원에서의 다섯 차례 강연 바탕

이어령 박사는 지난해 양화진문화원 목요강좌에서 '소설로 찾는 영성순례'라는 주제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앙드레 지드의 <탕자, 돌아오다>,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 박사의 지난해 강연 내용이 최근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으로 나왔다. 강좌에 참석했던 이들에게는 그때의 감동을 차분히 되새길 수 있는 반가움이, 강좌를 들었던 이들에게는 우리가 즐겨 읽었던 책에서 '신의 흔적'을 발견하는 새로움이 함께한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저자가 유일하게 세 번이나 읽은 장편소설이다. 중학생 때는 추리소설의 문학에 관심을 두고 읽었다면, 기독교에 입문한 뒤에는 종교 문제에 대한 물음을 갖고 읽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물을 흘렸다. "진실함 속에서 투정을 하고, 투정 속에서 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모순의 세계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고 법칙으로도 해명할 수 없기에 소설과 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테의 수기>는 저자가 '내 인생의 책'으로 꼽는 책이다. '인간과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관통하고 있는 71개의 수기로, 봐도 봐도 생각할 거리가 있는 명저란다. 그래서 학창 시절 사람들을 <말테의 수기>를 아는 인간과 모르는 인간, 둘로 구분하기도 했다. 여기서 저자는 생명을 말한다. "지금 죽음은 너무나 하찮게 다뤄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이 너무나 하찮게 다뤄진다는 것입니다. ... 문제는 너무나도 왜소해지고 가벼워진 우리들 내면의 황량함을 누가 고발하고 되찾겠느냐는 것입니다."

<탕자, 돌아오다>는 앙드레 지드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재구성한 짧은 소설이다. 자신을 '탕자'라고 생각했던 저자는 그 심정을 담아 이 비유를 자주 인용해 왔다. 당시 수술 후 넉 달 만에 돌아왔던 저자는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아니라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은 보통 때 먹을 수 없는 야생의 석류 맛, 광야 속에서 느끼는 갈증을 통해 얻는 생명력을 그 작은 열매 속에서 발견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는 아래로 떨어지는 돌맹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가장 높은 나뭇가지에서 익어가는 야생 석류입니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열풍 후 원작 소설에 대해 첫 강연에 나섰던 저자는, 당시 한국 사회가 빅토르 위고를 잘못 읽고(miss reading)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설을 통해 세간의 평가와 달리 '사랑이 없는 혁명은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영화를 다시 보면서 흥분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열기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 생명을 우리가 가장 많이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최근 소설인 <파이 이야기>는 당시 의외의 선택이었다. 저자는 이 소설에 대해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성으로는 결코 벗길 수 없는 일곱 개의 베일을 차례차례 벗겨나가 이룩고 우리의 밑바닥 깊숙이 숨어 있는 우주의 생명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 지적 오만을 깨뜨리고, 생명을 깊이 성찰해 저자가 주장하는 생명자본주의, 바이오피리아(biophilia·생명애)를 잘 보여준다는 것.

저자에게 '선택'된 책들은 모두 역설적이든 직접적이든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이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이어령 | 포이에마 | 360 쪽

시대의 '고전'들이다. 그리고 이 땅의 이야기들을 통해 영성과 신앙의 세계, 하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다. 기도나 신학의 언어를 통해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야생의 석류 맛' 말이다. 저자는 이 작업을 '소설을 통해 영성을 찾는 내 자신의 한 순례(Pilgrim)'라고 표현한다. "크리스천들은 이 책을 읽는 것이 나의 해설보다는 그 작품들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당초 '예수님이 다니신 길을 따라서 영성순례'를 하기로 했지만, '뜻하지 않은 신빙'으로 먼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성지를 '문학'으로 바꿨다고 한다. 저자의 바람대로 언젠가 건강이 회복돼 순례길에 오를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이대웅 기자



이어령 박사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미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약한암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특히)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광생물 연구가된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계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 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래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북미권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블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밥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야끼 갈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인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ran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Tel. 323.737.2922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3.8 ALL IN STOCK @ \$36,120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1000 down = \$250 lease cash, \$500 rebate, \$400 college rebate, \$1000 military, \$400 college rebate. \$1000 rebate on \$1,500 rebate per year. Total Drive Off: \$3999 without \$1,200 lease cash.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1000 down = \$250 lease cash, \$500 rebate, \$400 college rebate, \$1000 military, \$400 college rebate. \$1000 rebate on \$1,500 rebate per year. Total Drive Off: \$3999 without \$1,200 lease cash.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1000 down = \$250 lease cash, \$500 rebate, \$400 college rebate, \$1000 military, \$400 college rebate. \$1000 rebate on \$1,500 rebate per year. Total Drive Off: \$3999 without \$1,200 lease cash.

한기총, 애기봉 기도회 열고 평화와 통일 염원

등탑재건 의지 다져, 이영훈 대표회장 “기독교계가 앞장서자”



간절히 기도하는 참석자들. (맨 앞줄 왼쪽부터 순서대로) 하태초 장로, 임원순 목사, 엄신형 목사, 이영훈 목사, 홍재철 목사, 이응규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14일 오후 김포 애기봉 전망대를 방문,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등탑 재건을 위해 뜻을 모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및 목회자, 한기총 임원 등이 참여한 이번 기도회는 국방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하며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자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이날 권면의 말씀을 전한 이영훈 대표회장은 먼저 예배소서 2장 14~18절을 낭독한 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애기봉 등탑은 바로 그 평화를 염원하며 시작된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애기봉 등탑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회장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총성을 멈추고 서로 안고 사랑과 평화를 나눴던 것처럼 애기봉이 평화의 상징으로 재건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참된 평화와 대한민국에 전체에 임하고 남북통일이 이뤄지도록, 기독교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

개요설명을 한 홍재철 목사(애기봉등탑건립위원장)는 “십자가는 세계 기독교와 평화의 상징이다. 이를 철거하려 했다면 사전에 기독교계에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면서 “이곳에 십자가 등탑을 다시 세움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실 줄 확신한다”고 했다.

이번 기도회 준비에 기여한 국방부 군종실장 이호열 대령(군종목사)도 참석해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 기도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겸손과 사랑을 북한에 전하고, 국내 모든 교인들이 하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복음화”, “60만 군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 “평화공원 조성과 애기봉 등탑 재건”을 위해 각각 오관석 목사(명예회장), 엄신형 목사(증경회장), 임원순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했다.

이 외에 기도회에서는 윤덕남 목사(총무서리)가 사회와 광고, 하태초 장로(명예회장)가 대표기도, 이응규 목사(증경회장)가 축도를 맡았다. 한기총은 이 지역 군부대를 위해 과자 50상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는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애기봉 등탑 건립 비용으로 2억원을 현금하겠다 는 뜻을 전해왔다.

앞서 애기봉 한승희 관리소장이 등탑과 관련해 그 역사와 안전 문제로 불가피하게 철거하게 된 경과 등을 설명했다.

한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은 애기봉 등탑이 남북 갈등과 평화 파괴의 상징이라며 한기총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한기총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애기봉에서도 길목을 막고 시위를 벌여 이로 인해 일부 교인들이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류재광 기자

교회의 모든 성인들을 어린이·청소년 사역자로

CTS뉴미디어목회과정 총동문회(회장 이기엽 목사)가 주최하고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가 후원한 ‘2014 한국교회리더십 포럼’이 17일 오후 서울 노량진 CTS기독교TV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미래 목회와 교육 선교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주제발제와 패널토의 등이 있었다.

노항모(서울우리교회 담임)·설동주(과천약수교회 담임) 목사가 주제발제자, 박병호(라운하제교회 담임)·김인환(서울 신도교회 담임) 목사가 패널로 나섰다.

‘한국교회의 위기 진단과 미래 목회의 대안’을 제목으로 발표한 노항모 목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에서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국교회와 주일학교의 위기를 부채질하는 것은 낮은 출산율”이라면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불을 보듯 뻔하다. 한두 명의 자녀들을 애지중지하는 부모들의 과잉보호로,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지 부지런히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된 후 약 90%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지금의 한국교회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표”라며 “교육 방향을 수정해야 할 뿐 아니라 구조적 한계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설 목사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힘만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 그리고 신앙을 심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교육의 주제로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며 “가정을 외면한 신앙교육은 있을 수 없다. 교회가 가정의 부모를 깨워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제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쉐마교육’을 소개한 그는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이라며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쉐마교육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전방향적인 말씀운동”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전 세대가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되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항모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교회 교육’의 실패를 지적한 그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인재들을 길러내야 할 교회, 교육의 참된 목표를 상실했다”면서 “주일학교의 교육은 거의 재미 위주의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주일학교를 유지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는 지역개념이 아닌 세대개념, 즉 4세에서 14세로 상징되는 어린이·청소년 세대에 전도와 선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10년, 20년 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 어린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또한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노 목사는 또 “부모들을 포함해 교회의 모든 성인들을 어린이·청소년 사역자들로 헌신시켜야 한다. ‘전교인 주일학교 교사화’라는 목표 아래 목회와 사역을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들을 철저히 성경으로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한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동주 목사는 ‘다음 세대 세우기, 쉐마교육’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설 목사는 “중·고등학교가

김진영 기자

나쁜 인권현장을 막아 주소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이 1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약 2천여 명의 성도와 보수적 시

민들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1부 행사와, 민족복음화운동본부·부산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WCC반대운동연대·동성애반대운동연대·에스터기도

운동본부·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살롬선교회·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이 주도한 2부 예배로 진행됐다.

류재광 기자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c)(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지부장: 김경호 목사

☎ 213.249.1161
shelby.moon65@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일보 LA | **☎ 949.864.9162**
cmm6791027@gmail.com

* CMMI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료비 분담 사역)입니다.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Thanksgiving Special

쏘나타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확인하세요!
2014, 2015 전 모델 차량 인수 하시고 첫 페이먼트는 90일 후부터 내세요!

최신형 2015
SONATA SE

\$128 +TAX *\$0 DOWN
36mon.

MSRP: \$22,085,
\$0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500,
HOLIDAY BONUS CASH \$500,
LA AUTO SHOW BONUS \$500,
VALUED OWNER COUPON \$1000, BOOST UP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MODEL #28402F45



최신형 2015
ELANTRA SE

\$58 +TAX
36 Mon.

MSRP: \$19,410.
\$2,995 DUE AT LEASE SIGNING,
VALUED OWNER COUPON \$500,
LEASE CASH \$500,
HOLIDAY BONUS CASH \$500,
BOOST UP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MODEL #45432F45

최신형 2015 **EQUUS SIGNATURE 'DEMO'**

\$485 +TAX
36 Mon.

4대 한정

MSRP: \$62,450, \$4,990 DUE AT LEASE SIGNING, RESIDUAL VALUE \$32,474,
LEASE CASH \$2,000, VALUED OWNER COUPON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MODEL #E0422R85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찰리 정 | 626.513.4981



스티브 장 | 626.513.4006



저스틴 길 | 626.513.4580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